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아침말씀, 여기서 수원교회에서 오늘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말씀하는데, 가면서 섭리의 돌아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섭리의 방향을 보면서.

내가 면담도 해보고, 대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참 꼭 손질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가 한번 가보자고 하면 일단 호기심에 갑니다. 말씀을 들으려.

호기심에 갔다가, 그만큼 호기심을 못 주면, 안 됩니다.

호기심을 풀어놓았으면 그만큼 호기심대로 해 줘야 되는데, 못한다면 다시 떠나가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전입신고를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귀한 것을 알고, 전도를 하다 났으면 어떻게 할 것을 철저히 계획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1년이면 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전도를 하러 안 다녀도, 가만 있어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고 하는 문제가 심히 큼니다.

곡식도 뿌릴 때는 불과한 시간이 걸립니다. 쟁기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싹 뿌리면 ‘순간’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시간이 몇 달인가 하면, 8개월 동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을 관리해야 그때야 낫을 들고 맵니다.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놓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30개론 말씀을 전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야, 말씀 듣고 놀랬다.” 하지만,

옥토 밭에 곡식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떨어지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고 놀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제일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약 3년을 밍니다. 성경에는 3년 동안 깊이 파고 퇴비하며 가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꾸지도 않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한 3년쯤 된 사람들은 충분히 관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도 3년이 넘어가야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

같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물을 담는데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봐야 하는데, 그냥 빠져나가면 또 퍼다 붓고 맨날 그 위치지.

땀이 새면 결국 터집니다. 저수지가 샌다, 연못이 샌다, 그러면 결국 터지고 맙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

옛날에 나 혼자 할 때, 내게 관리를 무엇 무엇 하였는가 하면, 말씀 관리, 잠언 관리, 또 이런 여러 가지들입니다. 깨우쳐 준 말씀을 잘 관리했습니다.

<관리>를 늘 나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관리>를 잘하라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다 죽으면 얼마나 서운하다구요. 다시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해다 놓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에 안 나오면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차 같은 것도 한번 쓰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얼화칼슘 뿌린 데를 지나가면 차가 녹이 습니다. 안 좋으니 물로 싹 씻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한 만큼 좋아집니다.

구두도 매일 닦고, 매일 신잖아요. 막 신는 구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매일 해 줘야 됩니다. 매일!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너무 끌고 다니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크는 것을 봐 가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같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냥 자기가 주물거릴 자로 보면 안 됩니다.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상대가 돼서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하라고 했더니 그 애를 어린아이 취급만 하니까 개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심리를 알고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시대를 깨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 줘야 될 입장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늘 연구를 합니다. 선생님이. 사람관리, 인력관리 문제.
회사들도 인력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관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자기에 관한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친구들과 한 단계 믿는 교역자들에게 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힘듭니다. 속 얘기를 하면 관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얘기를 안 하니까 관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문제...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를 잘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요.

육신이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만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가치가 무가치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돈만 들어갑니다. 묘 자리에 돈이 들어가지, 장사할 때 돈이 들어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죽으면 돈만 더 들어갑니다.
돼지가 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값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값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자가 따로 없습니다. 무조건 좀 오래된 사람들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면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아 주고, 잡아 주고, 이끌어 주고 그렇게 서로 친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섭리사 끝날 때까지 친한 친구가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얼른 소식 듣고 “알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쫓아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고, 얘기도 해 주고, 대화거리가 되어 주고, 붙잡아 주고 해야 됩니다. 한번 붙잡아 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사람 잡아주는 것을 잘합니다.
혼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 것을 꼭 해 줘야 됩니다.

잠언 서를 보면 혼자 있는 자는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꼭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어디 갈 때도 둘씩 다니게 합니다. 차도 한 대 가다가 사고 나면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둘씩 가다가 그러면 옆 차가 잡아 당겨 주기도 합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 각 나라가 서로 그렇게 얹히고설켜야 됩니다. 얹히고설키지 않으면 무언가 안 됩니다. 꼭 서로 얹히고설키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섭리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관리를 다 못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내 관리 주관권 안에 있으면 내가 관리하다 나가니 원한이나 없지, 대개는 내 관리 주관권 바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선 관리를 하다가, 또 내가 관리를 해 주고. 다 큰 다음에는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관리합니다.

항상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성장되면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소나무도 심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을 세워 줍니다. 조금 가다가 빼 버립니다. 새 뿌리가 뻗어 나가면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새 뿌리에서 흔들리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계속 관리’가 아닙니다. ‘잠깐의 관리’입니다. 관리 받고, 자기도 관리해 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를 할 때는 과감하게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듯 밀어 붙여야 됩니다. 전도는 과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과감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전도’ 해다 왔으면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가운데 관리를 해 주면 그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계속 전도가 뻗어 나갑니다.

어느 교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수시로 교역자가 파악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왔다가 갔는가. 왔다가 갔으니 이 만큼이지, 안 갔으면 이 교회가 좁지요. 여기에 앉아 있지를 못하지요.

아까 내가 숙소에서 쳐다보니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수가 3000명 된다는데 거기서 50명을 전도 못합니까? 50명만 해도 큼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목회 하면 됩니다.

모두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까짓 것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야곱이란 사람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양을 잘 쳤습니다. 그들은 양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잘 다루었습니다.

선생님은 양은 못 쳤지만, 별도 길러보고, 농사도 지어봐서, “그런 식이다. 똑같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관리입니다. 동일한 관리를 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리를 정말 철저히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부흥 발전이 계속 됩니다.

신입생을 데리고 오면, 혼자 도닥거리면 안 됩니다. 성지 땅에 와서 인사 시키고 기억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이든 그 단체의 최고 가는 사람과 서로 친해야 재미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재미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막상 붙으면 전도는 호기심에 일단 옵니다. 일단은 오고 봅니다.

말씀도 한번 배우고 봅니다. 배우는데, 좋기는 좋은데 이상하니 자꾸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입생이 오면 서로 어울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나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신입생이 오면 대접해줄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섭외 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나만 왔다고 섭외 하면 안 됩니다.

대접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파악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잘 관리를 해 주면서 이들에게 임무를 주고 사명을 주고, 이러는데 왜 나갑니까. 재미있는데. 뭘 한자리 깔고 있는데.

놀이판에서도 정이 붙으면 안 떠나고, 골목에서 주먹 쓰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정이 붙으면 안 나가는데, 교회에서 정을 못 붙이니까...

일반 교회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식. 다시 말하면 자기 식을 벗어나서, 구시대 식을 벗어나서 신시대 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면 새롭게 하기에 다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아픕니다.

모든 것을 참 다양하게 해서 재미있게 뜻있게 연구도 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인생 연구도, 말씀 연구도 하고 재미하면서 끌고 나가면서 해야지, 재미 더럽게 없으면 안 합니다. 재미있게, 뜻있게, 가치 있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의미 있어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릴 때는 순간,

밭을 맬 때는 8개월,

거둬들이는 데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안 온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씨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관심 갖고 얘기해 주고, 대화도 해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됩니

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벼슬하는 걸음, 세상에서 관광 다니는 걸음이 크다고 하지만, 출세하러 가는 걸음..

사람 살리러 가는 걸음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러 간다고 하니 차도 다 비켜주잖아요. 뽀뽀뽀 하는 차 있잖아요. 사람 살리러 가니까 다 비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차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큰일 나지요. 막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 살리는 발걸음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쫓 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뜻있게 살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잘되고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너희 생명을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같이 고통 받는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고, 성령께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관리하고 있으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모든 심령과 상태를 살피사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한번 놓치면 영원한 길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철저히 붙잡고 가게 하시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손대지 못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도 편하게 해 주시고, 이들이 온 가정을 평강과 의와 공의로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사오니 그리함을 주시옵소서.

“네가 문제지. 동네 사람이 문제냐? 네가 말 잘 듣고 가면 동네 사람도 조용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과 의와 공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수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의 교회들 내가 일일이 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사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오니 모두 잘 되고 평안하기를 비노니, 내가 빈 평안이 영원하고 충만할지어다.

많은 생명이 결실하게 하시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다 멸해 주시고, 오직 이들이 하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영원할지어다. 아멘!